

미래를 향한 세계적 인재 양성의 산실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입학 · 홍보팀

■ 설립 이념

우리 경기대학교는 해방 직후였던 1947년 11월 7일에 조양보육사범학교를 전신으로 하여 창학하였다. 대학이 출범할 당시는 우리 민족이 극심한 정치적 격동과 사회 및 경제의 혼란, 그리고 교육정책의 빈곤 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더구나 일제의 우민화 정책으로 광복이 된 뒤에도 교원 및 교육시설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때에 교육구국(教育救國)의 응지를 도모하고자 탄생했던 우리 대학은 교시(校是)로서 진(眞), 성(誠), 애(愛)를 내세웠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인 홍익인간의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교육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1) '진(眞)'은 우주와 자연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길인 동시에 자신을 거짓이 없는 '참된' 인간으로 승화시키는 길이다.

2) '성(誠)'은 성실 근면한 인도를 닦아 자주 능력을 기르고, 자신과 제 삼자에 대해 책

임을 느낄 줄 아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한다.

3) '애(愛)'는 타인을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을 갖게 하고, 민족과 국토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인류애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 대학의 특색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고급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출은 보통 대학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독창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 경기대학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국내 정상이 아니라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기대학교는 국내 타 대학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대학교 전경 ▲

1) 세계화 프로그램(해외 자매대학 유학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보통 Study Abroad program이라고 칭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대학 학생들은 누구나 재학 중 1년간 외국 명문 대학, 예를 들어 Michigan 주립대학이나 California 주립대학, 또는 Texas A&M 대학, Long Island 대학, George Washington 대학 등의 자매대학에 유학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타 대학 학생들이 휴학을 한 뒤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데 반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외국대학에서 어학은 물론 일반과목까지 공부할 수 있고, 매 학기 12학점씩 1년에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대학에 복학하면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 받게 된다. 또한 1년간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그리고 식비까지 포함된 가격은 1만~1만 3천

불로써 매우 저렴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S.A.P와는 별도로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KCC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Kyonggi University Corps of Cadets의 약자로 보통 학생단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장차 ROTC를 지원할 예정인 1학년 남학생들과 장래 여성 지도자를 꿈꾸는 여학생들을 선발하여 우리 대학의 자매대학인 미국 Texas A&M 대학에 두 학기 동안 유학을 보내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유학 비용은 학교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된 학생들은 ROTC 제도의 150년 전통을 가진 Texas A&M 대학에서 현지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도 하고 군사훈련도 받을 수 있으며, 학점 취득까지 가능하다. 물론 이들 중 남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대부분 ROTC에 입단하여 국제 감각을 지닌 고급장교로 키워지게 된다.

아무튼 S.A.P와 KCC 프로그램은 우리 경

기대학교가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시행 중에 있고,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2) 교육의 다양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표 중의 하나는 급변하는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학부제에 따른 다전공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추세에 발맞춰 대학에서 하나의 단일전공만으로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특정 전공의 집중적 연마보다는 다전공의 획득으로 보다 유연하게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전공에 필수과목을 없애고, 모두 선택과목으로 대체해 학생들이 자신이 처음 입학한 학부에서 한 개 전공을 이수한 뒤 자유롭게 타 학부를 오가면서 2개의 전공을 더 이수할 수 있게 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과 취미, 그리고 취향까지 고려해서 마음대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전공을 이수하는 데 36학점이 요구되므로 학생들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 이내에 3개의 전공 이수가 가능하다. 실제로 매년 400여 명의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 졸업하고 있다.

3) 교육의 특성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인 대상의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과정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자체적으로는 비교 우위가 있는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거나 다른 대학과 구별되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특성화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기대학교의 특성화 작업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기대학교는 지난 1963년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4년제 대학 내에 관광학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위치를 제고시키는 데 신기원을 이루었다.

오늘날 관광은 세계적으로 골똥이 필요 없는 무공해 산업이라 해서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그 위치가 격상되어 있다.

우리 대학이 국내 관광학의 효시를 이룸에 따라 현재 국내외를 망라하여 많은 여행업계, 관광호텔업계 등에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학에도 150여 명에 이르는 우리 졸업생들이 강단에 서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광업계나 학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공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학을 특성화시켜 5년제로 전환하고, 졸업 후에는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과 연결시켜 건축설계 및 디자인의 전문가들로 양성시키고 있다.

몇 년 전, 교육부가 주관했던 BK21 사업에서도 많은 경쟁대학을 물리치고 우리 대학교 건축대학원 디자인사업단이 특화사업 분야에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 전경 ▲

당당히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다양한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다중매체영상학부는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부로 유명해지면서 경기대학이 대중예술의 메카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4년간 영어로만 수업하는 국제대학의 국제산업정보학과는 세계무대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IT 정보기술과 국제경영학 등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학과는 순전히 영어성적 하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해마다 폭발적인 입시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의 신입생 선발시에도 평균 50대 1이라는 전국 최고의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 대학의 발전 계획 및 장래 비전

우리 대학은 최근 '경기비전 2012'라 불리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첫째, 2003~2006년까지를 제1단

계인 '개혁 및 기반 조성기'로 둘째, 2007~2009년까지를 제2단계인 '도약기'로 셋째, 2010~2012년까지를 제3단계인 '성취 및 재도약 준비기'로 정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이 '경기비전 2012'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학생들을 강하고 능력 있는 창조적 인재로 키워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지구통합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대학교는 외형만을 치중하는 대학이 아니고 내실을 충실하고, 튼튼하게 다져 나가고 있는 대학이다.

경기대학교는 꿈 많은 젊은이들의 기대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첨단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학생들을 세계가 요구하는 큰 재목으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대학교로 오면 세계와 미래가 보일 것이다. 